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유 학 열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hyyou@cni.re.kr

이 연구는 농촌마을의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마을들이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일본의 우수 정책사례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한계마을의 등장과 개념
2. 일본 중앙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3. 일본 지방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4. 시사점

요약

-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더불어 마을의 모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한계마을에 대한 일본의 정책사례를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일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을 의미하며,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4가지로 구분함
-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한계마을 대응 정책으로 도시의 우수 인력과 농촌마을을 연결시켜 주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음. 구체적 사례로 지역부흥협력대와 집락지원원 제도가 있음
- 또한 농촌재생의 한 축으로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농촌지역자원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재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이러한 자원들에 의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로서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한계마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에는 농촌마을 고령자 또는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일자리 창출,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업 6차산업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01 한계(限界)마을의 개념

1. 한계(限界)의 의미

- 한계(限界)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의하면 ‘힘이나 책임,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 ‘어떤 지역과 지역을 구분 짓거나 가르는 선’으로 정의되고 있음
 - 주로 ‘한계에 다다르다’, ‘한계가 드러나다’ 등의 임계(臨界)의 의미로 ‘한계농지’, ‘한계기업’, ‘한계수입’ 등의 용어로 활용되고 있음

2. 한계마을의 개념

- 한계마을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처음 등장함. 오오노야끼라(大野晃)는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농촌마을의 고유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한계마을이라 정의함
 - 즉 농촌마을이 소멸에 이르기 직전 상태의 마을을 한계마을이라 함
 - 오오노야끼라는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4가지로 구분함

□ 참고: 농촌마을의 고유 기능

- 자치 기능: 마을 자치 활동, 행정기관과의 연대
- 지역자원 관리 기능: 농지, 산림, 하천 등 다양한 지역자원 관리
- 생활환경 유지 기능: 마을 안길, 도로, 용수로 등의 청소 및 정비
- 지역진흥 기능: 도농교류 활동(농촌관광 등), 농산물 가공, 직매장 등 6차산업 추진
- 공동체 유지 기능: 주민 간의 상호 협력, 독거노인 돌보기 등
- 전통문화 계승 기능: 지역의 전통 문화 보전,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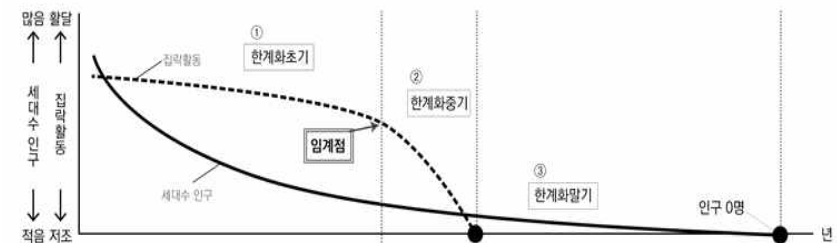
	존재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정의	55세 미만 인구 비율 50% 이하	55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50% 이상	인구 없음
내용	공동체 기능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상태	현재 공동체 기능 있음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없어 한계마을이 될 수 있는 상태	고령화 진행으로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이른 상태	현재 취약 소멸된 상태
가구 유형	젊은 부부 취학중인 아동 후계자	부부만 거주 준노인* 부부	노인 부부 독거 노인	없음

* 자료: 충남연구원, ‘서천군 한계마을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

〈그림 1〉 한계마을의 단계별 기준 및 특징

3. 한계마을의 진행 과정

- 일반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과정은 ① 한계화 초기, ② 한계화 중기, ③ 한계화 말기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한계화 초기 단계: 급속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시기임. 마을 주민들의 마을 내 공동 활동이 완만하게 약해지지만, 전반적으로 마을 활동은 유지된 상태임
 - 한계화 중기 단계: 한계화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 사이에 임계점이 있는데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한계화가 진행됨. 인구는 한계화 초기와 유사하게 감소하나 마을주민들에 의한 공동 활동이 크게 쇠퇴해지는 단계임
 - 한계화 말기 단계: 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마을 주민에 의한 공동 활동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상태임. 마을 소멸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자료: 일본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2007)

〈그림 2〉 한계마을 진행 과정

4. 한계마을의 3가지 공동화(空洞化)

- 오니시다카시(大西隆)는 3가지 공동화에 의해 농촌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이라 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3가지 공동화라는 것은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마을(공동체)의 공동화’를 의미함
- 사람의 공동화: 마을인구 감소의 원인이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감소보다는 자연적 감소로 전 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도 줄어들면서 농촌마을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의미함
- 토지의 공동화: 농림지의 휴경화라고 표현할 수 있음. 농업 후계자가 부족해짐에 따라 경작포 기, 농지 황폐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함. 지금까지는 부모님세대가 힘들게 농업활동을 해 오면서 토지를 이용·관리해 왔으나, 고령 은퇴농가가 급증하면서 토지(농경지)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임
- 마을(공동체)의 공동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처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을 기능의 저하에 의해 정체된(침체된) 상태를 의미함. 즉 농촌마을 자원의 관리능력 저하, 공동 생산, 판매 등 공동 농작업의 불가능, 마을의 전통 문화, 예능 전승 능력 저하 등이 현재의 주민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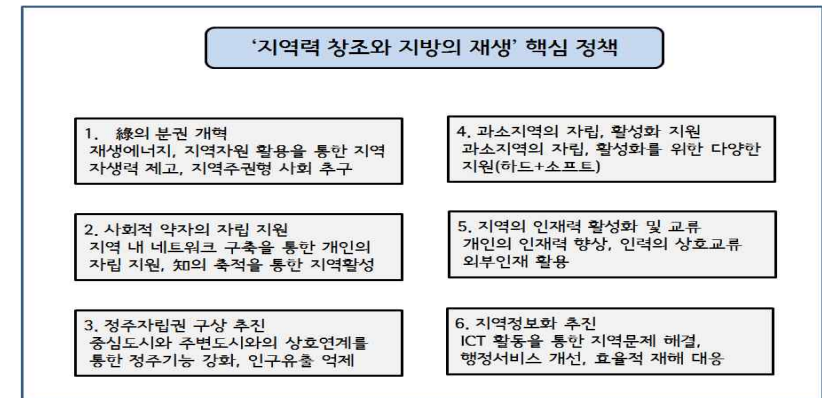
5. 한계마을과 유사 개념

- 한계마을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과소(過疎)’ 마을과 ‘오지(奧地)’ 마을이 있음
- 과소마을: 과소는 사전적으로 어느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밀(過密)과 상대적인 어휘임. 의미상으로 보면 과밀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며, 일정 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다른 지역보다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결과론적 개념임. 한편 조준범(2009)은 과소마을을 과소화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마을의 규모와 밀도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오지마을: 오지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두메산골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오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오지의 범위는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이라고 규정함

02 일본 중앙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1. 지역력 창조와 지방의 재생 정책 (총무성¹⁾)

- 침체된 지방(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일본 총무성에서는 ‘지역력 창조와 지방의 재생’이라는 비전을 설정함
- 지역력 창조와 지방의 재생 정책은 ‘緣의 분권개혁’,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정주자 립권 구상’, ‘과소지역의 자립’, ‘지역의 인재력 활성화 및 교류’, ‘지역정보화 추진’이라는 6개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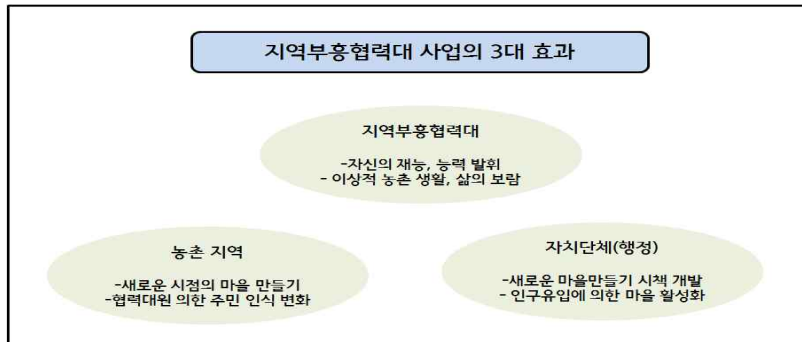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력 창조와 지방의 재생’ 핵심 정책

1) 총무성은 (일본어: 総務省 소무쇼[*],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약칭: MIC)은 일본의 행정 기관임.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에 유사한 정부기관임
2) 본고에서는 6개 주요시책 가운데 지역의 인재력 활성화 및 교류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함

2.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

- 지역부흥협력대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선발된 협력대원을 농촌지역에 일정 기간(1년~3년) 정주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지역협력활동)을 하게끔 하는 제도임
- 지역부흥협력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농림수산업에 종사, 수원(水源)보전 활동, 환경보전 활동, 주민생활지원³⁾, 지역활성화사업⁴⁾ 지원 등임
- 선발된 협력대원은 생활의 거점을 도시지역에서 산촌, 어촌, 도서지역으로 이주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상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협력대원에게는 연간 최대 400만 엔⁵⁾ 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4〉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의 효과

- 2009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누계 6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625명으로 늘어났음
- 대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약 60%,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를 보면 약 80%가 2~30대로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음
- 2015년 총무성에서 조사한 지역부흥협력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원 임기만료 후 약 59%가 활동했던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마을 내 독거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돌봄 활동

4) 지역(마을) 내 각종 행사 지원, 지역(마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농촌관광 사업 지원, 지역특산물 판매 지원 등

5) 활동비 200만 엔 + 생활비 200만 엔

- 또한 활동 기간 완료 후 정주한 협력대원의 직업형태를 보면 활동한 농촌지역 내에서 47%가 취업, 18% 취농, 17% 창업⁶⁾ 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대원 선발 방법은 협력대원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자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선발된 협력대원이 해당 지역에 잘 정착하게끔 월 2회 자율 활동 부여, 차량 제공, 자격 증 취득 지원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음
- 협력대원 활동에 의한 정책 성과로서는 ‘마을 내 빈집이 점점 줄어들어 마을에 활력을 되찾았다’, ‘외부의 시각에서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참가율이 향상되었다’ 는 점을 들 수 있음

3.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

- 2008년에 도입된 집락지원원 제도는 조건이 불리한 농촌, 산촌지역의 집락(마을)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한계집락대책의 하나임
- 집락지원원이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마을 활성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고 지역(마을)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함
- 집락지원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해당 지역 공무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인구동향, 주민생활상 파악, 농지 상황, 지역자원 발굴, 귀농(귀촌)자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함. 이러한 활동을 일본에서는 집락점검(集落點檢)⁷⁾이라고 함
 - 상기의 집락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함
 - 선발된 집락지원원에게는 연간 최대 350만 엔이 지급되며, 별도의 직업이 있어 겸업을

6) 창업시에는 별도로 1인당 100만 엔 한도로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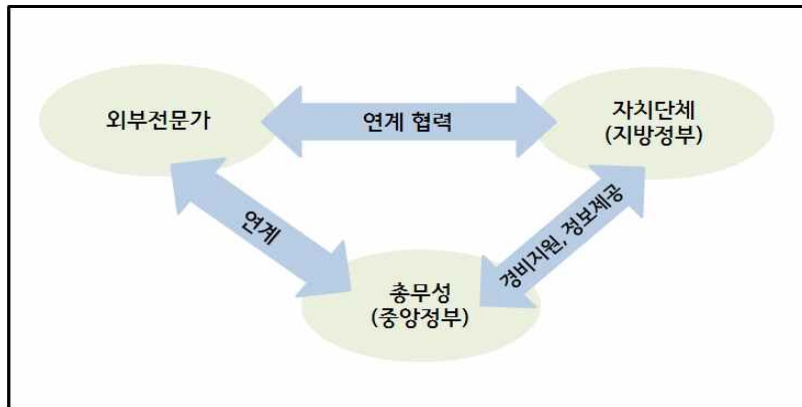
7) 집락점검이란 집락이라는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주민이 집락의 환경, 공간의 현황, 문제점 등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農村整備用語辭典(농촌개발기획위원회 2001년 개정판) 참고)

할 경우에는 연간 40만 엔이 지급됨

- 2013년 현재 196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임 741명, 겸임 3,764명, 총 4,50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시정촌, 市町村)에 평균 약 23명의 집락지원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임

4. 외부 전문가 어드바이저

- 지역의 독창성 발견 및 가치 향상 등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⁸⁾를 초청하는 제도임
- 외부전문가는 총무성이 운영하는 '지역인재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는 등록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면 됨
 - 2015년 9월 현재 민간전문가 301명, 공무원 26명 총 327명이 등록되어 있음. 외부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경비⁹⁾는 총무성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5〉 외부전문가와 관련 기관과의 관계

8)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라고도 부른다.

9) 외부전문가 여비, 사례비, 워크숍 비용 등이 해당되며, 1개 지자체에 연간 120만엔~560만엔이 지원되고 있다.

5.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농림수산성)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랑이논, 마을 숲, 마을 하천 등에 의해 형성되는 아름다운 풍경(경관), 문화, 전통 등의 종합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경관, 전통예능 등의 소중한 지역자원이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보전,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임
 - 하지만, 농촌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자원들을 현대적인 의미를 재평가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로서 재생활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농촌의 가치 향상, 계승 (소프트 지원): 농촌지역의 경관, 전통, 문화 등의 가치를 향상, 계승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지원과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 후세에 남기고 싶은 농촌자원의 보전과 복원 (하드 지원): 다랑이논, 마을 숲, 마을 하천 등 농촌자원의 보전과 복원에 필요한 시설 정비
 -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농업유산 제도와 연계와 할 수 있음
 - 사업비: 소프트 사업 400만 엔 지원, 하드 사업 600만 엔 지원



〈그림 6〉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사업

〈참고〉 농업유산이란?

▶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
- 농업유산이란 오랜 세월에 걸친 농업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과 이것으로 형성된 경관을 지칭
- 농업유산의 핵심 요소는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 관계,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농업활동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생태계와 농업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독특한 토지이용경관(농업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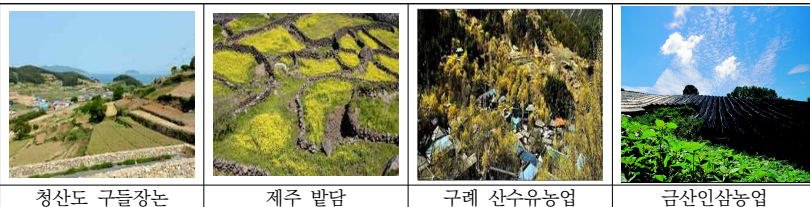
▶ 한국중요농업유산(KIAHS: Korean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 농어업적,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 적응 과정을 통해 진화해 온 보전,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과 이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
-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함. 하드웨어적 요소는 농경지, 농업 관련 시설물(농수로, 원예 시설 등) 등에 의해 형성되는 농업경관, 반면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전통 농업기술,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전통적 농업활동 지혜 등 농업시스템과 관련된 것임

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다랑이논, 경사지밭 등) ■ 농업 생산 관련 시설물(농수로 등) ■ 농업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물다양성 ■ 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 ■ 전통 농업지식체계 및 지혜 ■ 전통 농업 관련 축제, 품습 등 문화체계

▶ 국가중요농업유산 사례



6.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농림수산성)

-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함에 따라 마을(지역)의 유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 인구 감소, 지역력 쇠퇴에 따라 마을 존속에 위기감 도래. 농촌마을 원래 모습으로 존속하기 위해 마을 간 노동력, 지혜 등을 협력, 보완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농촌집락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민 주도로 지역(마을)의 장래 비전 작성: 전문가 자문, 워크숍 지원
- 지역(마을)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지역 활성화 세미나 참가 지원



〈그림 7〉 농촌집락 활성화 지원 사업

03 일본 지방정부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1. 도쿠시마현(徳島県) 집락재생 프로젝트

- 2015년 현재 도쿠시마현의 경우 1,708개 농촌마을 가운데 606개가 한계마을로 전체 마을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 도쿠시마현 한계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지역(마을)을 이끌어 갈 리더 부족으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공동작업, 마을행사 추진이 어려움
 - 인구가 감소하고 임업이 쇠퇴함에 따라 마을 주변 산림이 황폐해 짐. 그 결과 야생동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새로운 고용창출이 어려움
 - 마을을 떠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빈집, 폐허로 인해 마을 경관 악화됨
 - 교통, 도로 등 생활, 공공서비스 질이 점점 나빠짐
- 도쿠시마현이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계마을 정책으로 ‘안전 · 안심의 확보’, ‘지역자원의 활용’, ‘인재확보 · 육성’, ‘매력 발신’ 4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음
 - ‘안전 · 안심의 확보’ 프로젝트: 고령자 돌봄 시스템 구축, 일상생활 용품 구매 도움, 방재 강화
 - ‘지역자원의 활용’ 프로젝트: 마을 내 새로운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출, 유휴자산 활용, 산림자원 활용, 특산물 개발, 판매 촉진
 - ‘인재확보 · 육성’ 프로젝트: 정보 발신력이 있는 인재를 유치, 마을 응원단 모집
 - ‘매력발신’ 프로젝트: 마을자원 사진전, 지역 축제, 전통 예능을 활용한 새로운 마을 이벤트 개발, 개최

[표 1] 도쿠시마현 마을재생 프로젝트 세부 시책

분야	구분	시책
안전, 안심의 확보	고령자 돌봄 시스템	- IT를 활용한 고령자 돌봄미 네트워크 구성 - 돌봄미 활동 협력기관과의 연계
	쇼핑, 이동 지원	-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약자 대책 시스템 - 주민 이동수단 확보 서비스 구축
	방재, 자치 강화	-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다양한 주체에 의한 마을숲 보전활동(벌목 등) - 마을의 방재 능력 강화, 고립화 대책 마련 - ICT 기술을 활용한 마을 총회(자치회) 단결력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	유휴자산 활용	- 빈집 활용이 가능한 운용시스템 개발 - 휴경지 재생 - 약선요리, 약초제배 보급
	관광, 교류 추진	- 옛집을 활용한 체재형 농가 민박 추진 - 체험형 교육 여행 프로그램 개발 - 마을의 고유 경관 유지, 관리
	특산물 개발, 판매 촉진	- 지역 특산물 개발, 판매 촉진 - 야생동물의 활용한 요리 개발(야생동물의 6차산업화)
인재확보 인재 육성	인재 확보	- 정보발신력을 소유한 인재 마을 내 유치 - 귀농, 귀촌 가구 지원체계 확대 - 지역부흥협력대, 집락지원원 유치 -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인적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재 육성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 지역리더 육성
마을 매력 발신	영상 발신	- 마을 경관 등의 영상콘텐츠 축적 - 사진전 등을 통한 마을 매력 발신
	이벤트 발신	- 마을 특산물 한정 판매, 전시 판매 실시 - 지역문화, 전통예능을 활용한 이벤트 실시

2.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사례(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 오가와무라(小川村)는 전형적인 산촌지역임

- 일본 나가노현 오가와무라는 해발 500미터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 마을
- 과소화, 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 사회의 활기 저하
- 오가와무라 인구: 9,400명(1950년) ⇒ 2,900명(2015년)

● 농업의 6차산업 경영체 ‘오가와쇼(小川庄)’ 탄생

- 제3섹터 형태가 아닌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즉 행정기관의 출자 또는 보조금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으로부터 6차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받음
- 지역 내 민간기업 (50%) + 지역 농협 (15%) + 지역 주민 (35%) 출자
- 1986년에 설립 2016년 현재 종업원 약 80명, 연 매출 약 80억 원

● ‘오가와쇼’의 6차산업화 전략

- 제철 산나물(채소)를 활용 전통 “오야끼(おやき)¹⁰⁾” 산촌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살려 예부터 재배해 온 제철채소 활용
-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상품 개발: 상품 디자인 및 네이밍을 지역의 역사성과 산촌이라는 소박성 표현
- 전통적 향토음식을 현대인 취향에 맞게 개발: “오야끼” 제조는 전통적 방식을 계승하면서 현대인 추구하는 자연식, 건강식으로 상품화



- 1마을 1상품 만들기: 오가와무라 내 4곳의 가공시설과 체험공방을 조성, 직업 대부분이 고령 자임을 감안하여 출퇴근 거리의 최소화함
-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성을 살림: 할머니들이 전수해 온 변함없는 전통 제조 기법과 맛을 살림
- 가공시설 인프라 확충보다는 판매망 확대에 주력: 판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직매장, 체험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 확충, 최대한 하드웨어 투자 억제
- 글로벌 시장 개척: 일본 내 거주하는 외국 저널리스트 초청, 오가와쇼의 제품의 전통성과 소박함을 어필

10) 모양은 우리나라의 전병과 유사하나 만드는 방법은 찌기도 하지만 굽기도 함

3. 농촌 지자체의 인구 유지와 유입을 위한 주택 정책

- 정영주택(町営住宅)¹¹⁾, 촌영주택(村営住宅)¹²⁾은 농촌에 살고자 하지만 충분한 자금이 없고,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전원생활을 만끽하고자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임
 - 이러한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1990년대 이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고령자나 귀농, 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과거에는 연립주택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별로 입주 자격은 상이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
 - 1순위: 마을 내 정주할 의사가 있는 세대
 - 2순위: 입주 신청 시 만 40세 미만의 세대주
 - 3순위: 실제로 주거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주민
- 가와네촌(川根村) 촌영주택의 사례
 - 규모: 일반적으로 대지 약 300㎡, 주택규모(건평) 약 100㎡
 -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며 임대료는 월 30,000엔 정도임
 - 촌영주택 조성 비용의 재원 조달: 토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50% 국가에서 보조, 토지 취득비와 공사비의 50%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
 - 가와네촌 촌영주택의 입주 조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함, 20년 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야 함, 지역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촌영주택 조성 절차: 촌영주택 조성 계획 수립 ⇒ 면접 ⇒ 입주자 확정 ⇒ 주택 설계 ⇒ 시공
 -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을 조성하더라도 마을 경관과 조화되도록 외부 자재 선정, 형태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11)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정(정, 초)에서 지원하는 주택
 12)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촌(촌, 무라)에서 지원하는 주택

04 시사점

- 일본의 한계마을 대책의 근본이 되는 과소법(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전체적 방향이 하드적 지원에서 소프트적(인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실효성을 강조한 소프트적(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¹³⁾이 발휘되고 있음
- 관련 정책들의 현장에서의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임. 지역부흥협력대, 집락지원원 제도가 도입된 지 5~6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점점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의 이 제도에 대한 수요와 실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태안군 농어촌마을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임. 이미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주 前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
- 단순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 핵심인력을 유입하고 있다는 점임. 과소화된 농촌지역에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음. 양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소수라도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의 유치가 필요함. 왜냐하면 그러한 소수에 의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의 유입 등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13) 집락지원원의 활동을 위한 보수, 활동여비, 마을활동 비용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함. 메이지 대학 오다기리교수는 “보조금에서 보조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표현함.

참 고 자 료

유학열. 2015. “6차산업 성공사례에서 배운다”, 농업농촌의 길 2015

조영재 외. 2013.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 2013-07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권 3호 pp.163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